

나경원 때처럼...친윤계·대통령실 '안철수 때리기'

국힘 당권 지지율 앞서가자 견제 이철규 의원 "가짜 윤심팔이" 맹공 安 "집단적 이전투구" 강경 대응 천하람 출마 지지율 구도 영향 주목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안철수 후보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지난달 25일)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가 나 전 의원 불출마를 압박한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나 전 의원 불출마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안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김기현 후보를 지원해 왔던 친윤계는 집중적인 '안철수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 등이 지난 주 후반 라디오나 SNS를 통해 "가짜 윤심팔이" 등 맹공을 퍼부었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나서 언론에 "윤심은 안 후보에 없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안 후보는 자신만 한 친윤 그룹을 겨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친윤계 십자포화에 "집단적 이전투구"라고 직격탄을 날리더니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향해서는 "자신들만의 아성을 구축했다. 대통령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직격하는 등 발언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다.

이러자 차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 등 여타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SNS를 담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전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 주장은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혀서, 무능해서, 주변 관리를 못 한다며 대통령을 지칭하고 직접 공격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선을 넘었다"라고 맞받아쳤다.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임에도 김 후보가 아

닌 친윤계와 안 후보간 거친 파열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이런 모습이 향후 당권 지지율 구도에 어떻게 작용할지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전대가 100% 당원 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결국 지지율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라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들은 결국에는 전략적 사고를 한다"며 "벌개는 탄핵, 가까이는 '이준석 파동'을 겪으며 트라우마가 있다.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이 훨씬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지식의 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실력대로 겨뤄보고 이기는 사람과 함께 선거(총선)를 치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상태로만 보면 친윤계에 대한 반감이 김 후보의 지지율을 꺾어 먹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안 후보가 우세한 접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37)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막판 출사표와 김-안 후보 지지율간 함수 관계도 주목된다.

천 후보가 4명을 추리는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지지율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약 80만명의 당원 중 이 전 대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원 표심을 8만~10만 표 안팎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천 후보는 안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고, 그중에서 청년층은 오히려 천 후보가 인지도가 더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이들의 표가 분산되며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중도-청년-수도권 모두 정치적 이해도-참여도가 높은 지지층"이라며 "당이 더는 퇴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컷오프 이후 '사표 방지'를 위한 표의 이동-결집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갑을 합동 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힘 전대 등록 마감...호남 정치인 지도부 입성 관심

천하람 당 대표 도전장

조수진·문병호 등 최고위원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지난 3일 마감됐다.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 중에서는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이 당 대표, 조수진 의원-문병호 전 의원-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특보가 최고위원,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 청년최고위원에 각각 도전한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에 호남 정치인들이 입성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등록 기간인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당 대표 후보에 총 9명이 등록했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원외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성업 변호사, 김준호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등록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총 18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이 출마했다.

원외에서는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문병호 전 의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특보,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정동희 작가, 정미경 전 최고위원, 지창수 전 서울시의회의 의원, 천강정 전 제1차 최고위원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만 45세 미만 청년 룩인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

에도 11명의 후보자가 몰렸다.

현역 의원은 지성호 의원이 유일하다. 원외에선 구혁모 전 안철수 대통령후보 뉴미디어 홍보본부장,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영호 변호사,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나는 국대다' 참가 자격이 있는 서원렬씨, 양기열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과 육지원 전 부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이숙희 충북도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대 선관위는 오는 5일 자격심사를 통해 예비경선(컷오프) 진출자를 가린다.

이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최고위원 4인의 본경선 최종 대진표를 확정한다.

본경선 진출자들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 등을 거치며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오광록 기자 kroh@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p 하락 34%

한국갤럽 조사...부정평가 56%

정당 지지도 국힘 35%·민주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설 연휴 이전보다 소폭 내렸다.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17-19일)보다 긍정 평가는 2%p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3%),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목심'(이상 6%), '국방/안보', '노조 대응'(이상 5%), '부정부패-비리 척결',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 정권 극복', '변화/쇄신'(이상 4%) 등 순이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6%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14%),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발언 부주의'(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2%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p 내린 35%,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34%,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6%, 정의당 5%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징역2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경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

지법 위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